

#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때 법적조치”

## 김승환 교육감 “흔들림없이 역사 보조교재 만들 것”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교부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10월로 예정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미편성분만큼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별로는 전북교육청 813억원, 경기교육청 5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감액교부금 최종 확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무부에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액교부금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민일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범용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삭제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반 문부과학성의 서울을 장소인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검정제에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에 적용되는 검정기준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을 나타내는 황복도 빼버렸다”면서 “이를 보면 교육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와 관계없는 것을 선언한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몇몇 시도교육청이 만들고 있는 역사 보조교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깜깜이’ 집필하고 있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역사보조교재에 대해 ‘열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북교육청은 전혀 흔들림없이 역사 보조교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만족도 지난해 대비 상승

### 87.6점... 1.2점 상승해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조사한 2015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87.6점으로 지난해 비해 1.2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86.3점에 비해 1.3점이 높은 것이며 학생 만족도 85.1점, 학부모 88.0점, 교직원 95.0점으로 조사돼 지난해 비해 모두 상승했다. (2014년 학생 84.9점, 학부모 85.3점, 교직원 92.0점)

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 세부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생활교육의 강화로 비린 식품관을 정립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도구

를 개발해 음식의 맛, 식사 및 배식질서 지도, 원활한 배식 등 13개 급식 품질 속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별, 학교급별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음식의 맛 ▲음식의 적정 온도 ▲음식의 제공량 ▲메뉴의 다양성 ▲급식의 영양 ▲급식 위생 ▲식재료의 품질 ▲식사 및 배식 질서 지도 ▲급식의 견수 수량 ▲급식 정보 제공 ▲원활한 배식 ▲식사 장소의 편안함 ▲배식원 인원 등 13개이다.

이번 조사는 연내에 연말인수회를 조사해 임지로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17개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지역교육청과 각 4개교씩 표집(총 204개교, 교당 학생 30명, 학부모 10명, 교직원 10명) 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인원은 학생 6,120명, 학부모 2,040명, 교직원 2,040명, 영양(교)사 204명으로 총 10,404명이 참여했다.



##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 돕겠다

### 전북도교육청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강성태)와 21일 오전 11시 분청 5층 접견실에서 학생 진로직업 체험 및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다양한 경제 관련 체험활동 지원에 협력함으로써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를 기여하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생 경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기회 제공 ▲지역 고등학생 대상 경제 관련 토론회 공동 개최

▲최소의 비용,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경제 교육 협력 ▲재계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강성태 본부장은 “앞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도내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학력 향상 학부모 교육재능 기부 ‘출발’

### 전북도 학부모, 교육재능기부단 발대

전북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재능기부단이 학습 및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초·중학교 학습더미 학생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전라북도교육청은 58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기초학력 교육재능기부단’ 발대식을 갖고 오는 10월부터 기초학력 더미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학습지원 및 방과후 개별학습지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발원 발대식에는 58명의 학부모 기초학력재능기부단 및 결연을 맺는 수혜학교 교감,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학부모 기초학력 교육재능기부단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더미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 주의 집중 및 자기 관리, 자기 주도적 학습전략 등 각종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수혜학교는 전주(10교), 군산(5교), 익산(4교)을 중심으로 남원, 김제, 완주, 정수, 임실 등 24교이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수개월 전부터 상담지원기 활동 연수 등 기초학력 관련

교육 등 학부모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교육재능기부 활동을 희망하는 기부자들을 모집하여 수혜를 희망하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최종 58명의 기부자를 확정했다.

현재, 정읍과 남원 중심으로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재능기부 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기초학력 교육재능기부단은 2015년에 발족된 퇴직교원을 활용한 교육재능기부단과 함께 교육과 기부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갈 예정이며, 12월 경 감사의 날을 마련하여 퇴직교원 및 학부모 교육재능기부단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전북도교육청, 특성화고

###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6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하여 학생 41명과 학부모, 인솔교사, 담당교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도교육청에서 신발민 용접 7명, 자동차 2명, 조리·제과 제빵 7명 등 16명과 전주생명과학고 식육처리 3명, 원예조경 7명 등 10명, 한국경마축산고 말산업 5명, 전북기계공고 기계가공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9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호주 시드니, 전주생명과학고는 9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호주 브리즈번 및 투울라, 한국경마축산고 학생들은 9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브리즈번에서 각각 어학연수 4주, 기술연수 4주를 받고, 4주간 현장학습을 하게 된다. 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은 중국에서 9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한다.

글로벌 현장학습이 종료되면 전원 일시 귀국하나 취업의지가 있는 학생의 경우 호주 현지 업체와 취업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2013년 25명, 2014년 30명, 2015년 35명을 파견했으며, 참가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및 다양한 해외체험·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관련 특화된 맞춤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강화와 전문 기술 기능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운영된다.

## 전북도교육청, 2017년 어울림

### 학교 10개 추가 공개모집

전라북도교육청은 2017년 어울림학교 10개교를 추가 공개모집한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놓여준 학교 중 학습성 40명 이내인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운영할 마을교육 협력형 어울림학교를 공

개모집해 10개 기량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라북도내에는 99개 어울림학교 있으며 공동통학구형, 작은학교 협력형, 테마형, 마을학교 협력형 4가지 형태가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지역이동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과 연계하는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 아 리학/학 스마트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현장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든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대표이사 이지연

주최/주최사 세화테크 대표이사 이지연

010-5488-2617  
seohatech@naver.com  
www.seohatech.com  
Tel: 962-987-9817  
Fax: 962-111-9817